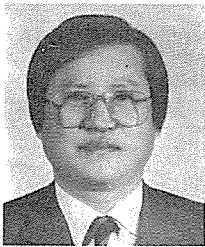


盆栽 5

소사나무

한국분재연구원
(0343-43-6367)
원장 안형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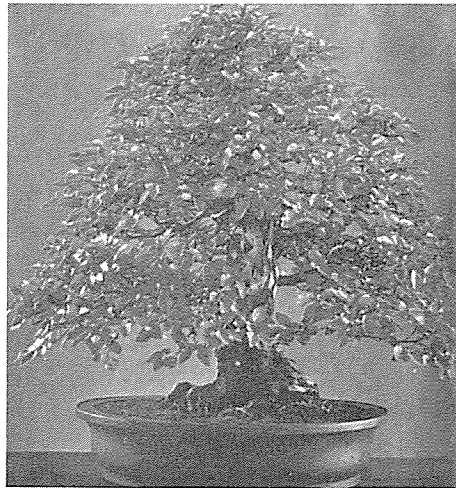
우리나라 원산의 낙엽소교목(落葉小喬木)으로써 경기도 해안과 남해안 섬지방에서 자생하는 나무이며 가지가 섬세하고 잎맥(葉脈)의 배열이 기하학적(幾何學的)으로 규칙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낙엽수종 가운데 넘칠만한 나무가 없을 만큼 분재로써 각광을 받는 수종(樹種)이다.

낙엽수종의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특히 소사나무에 있어서의 봄철 싹트는 생명력, 여름의 녹음(綠陰),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 겨울 나목(裸木)의 섬세함 외에도 회백색의 수피(樹皮)와 울퉁불퉁한 줄기의 생김새가 특색있는 나무다.

1. 번식법

실생(實生)과 삽목(挿木)에 의해 번식한다. 10월에 열매가 익



-자작나무과-

學名: Car pinus coreana

은 후 채취하여 강 모래를 씻어 두배 정도로 잘 섞은 다음 습기를 가하여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면 발아율이 좋다.

삽목의 경우에는 영양이 충실한 당년지(當年枝)를 20cm로 삽수를 조제(調製)한 다음 4월 초 순경 5cm가량 땅에 묻히도록 꽂고 반 그늘을 해주며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면 발근이 잘 된다.

2. 배양토

3~4% 정도 굵기의 토양입자를 쓴다. 척박한 땅에서도 잘 생육하는 나무이므로, 토양의 통기성에 유의 해야 한다.

3. 물 주기

소사나무는 토성(土性)이 사질(砂質)이며 건조에 견디는 힘이 강한(耐乾性) 나무이므로 보통의 분재보다는 물을 약간 작게 주는 것이 가지의 마디를 짧게 하고 잎 모양을 조그맣게 기를 수 있다.

4. 비료주기

특별히 비료를 줄 필요는 없다. 다만 잎 따기를 실시 할 예정이거나 실시한 다음, 그리고 수세(樹勢)를 회복 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3~4 회정도 물비료(療肥)를 주는 것이 좋다.

5. 병충해

병해는 거의 없으나 심한 동해(凍害)를 입었을 경우 위축병이 생기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충해로는 자 나방과 진딧물이 가해(加害)하므로 발생하면 "디프수용제" 1,000배액과 "메파시스독스" 800배액으로 구제한다.

6. 알맞은 수형

줄기가 굵은 산채목(山採木)의 경우 모양목, 직간, 쌍간, 주립형태가 좋고 실생이나 삽목한 묘목으로는 합식으로 만들면 특색이 있다.

(다음호는 당단풍 분재가 연재됩니다)